

환경상품 유통망과 물류센터 구축절실

한국환경상품제조업협동조합
정해순 회장



환경보전, 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이라는 문제는 그린라운드로 표상되듯이 전지구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분야에서만은 '선진' 대열에 끼이고자 조급하게 경주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정작 목소리만 주변에서 요란했지 환경상품을 제조하는 기업의 형편은 이러한 흐름에 상관없이 별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관련 기업의 영세성 탓도 있겠지만 소비자의 '구박'과 정부의 외면 덕이 클 것이다.

"폐자원에 대한 회수 공급체계가 미흡한데다 가격도 비싸 대부분 수입해오는 실정입니다. 또 관련기업이 대다수 영세하기 때문에 재활용 제품의 소비 유통망 형성이 안되어 있고, 외국의 경우처럼 환경상품의 의무 구매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도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업체들의 생존 조건은 매우 열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환경상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개별기업단위로는 문제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공동대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난달 5일 '한국환경상품제조업협동조합'을 결성, 초대회장에 (주)살림원의 정해순 대표(47)가 선임돼 신생조합 살림을 꾸려나가게 됐다.

정 회장은 일본의 생활협동조합 활동을 가까이서 지켜본 경험이 있는데다 실제 회사를 운영하기 전 환경관련 소비자모임에서 활동할 때에 폐식용유 등을 이용한 재생비누를 개발, 주변에서 떠맡기다시피 해 아예 재생비누 생산

전문회사 경영에 나서게 되었다. 기업경영의 현장에 나서으로써 소비자운동 차원하고는 다르게 중소 환경업체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껴온 터이다.

앞으로 조합은 폐자원의 수집 및 공급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대처하고, 환경상품 유통을 위한 전국권의 물류센터 형성, 소비자의 발길이 있는 곳에 환경상품점 설치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체에 물류검사소 등을 설립해 품질검사, 교육연수 등의 사업도 펼칠 예정이다.

현재 82개의 환경마크 취득업체중 20여개사가 회원사로 가입해 있는데 나머지 대부분의 중소기업들도 가입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그린라운드로 인해 앞으로 환경친화적인 상품이 아니고는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데, 영세규모의 환경상품 제조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또한 기업도 공해가 없고 소비자에게 실익이 있는 상품 제조에 최대한 노력을 쏟아야 하겠지요. 소비자도 마땅히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겠지요."

숙명여대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한 정 회장은 90년도부터 살림원을 경영해오고 있는데 요즘은 수의사 출신인 남편이 공장 일을 도맡고 있다고 한다.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는데 '비누공장의 문을 닫는 날이 가정의 행복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식구들의 원성(?)이 간간 꺾어왔을 역경을 말해준다. 이러한 정 회장의 남다른 환경에 대한 공로가 인정돼